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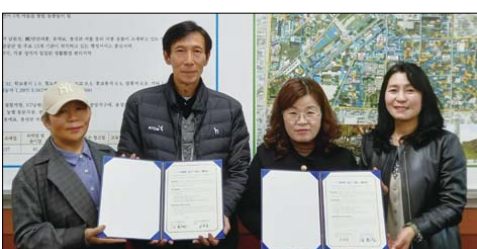
남원 도동동, 겨울철 한파 대비 총력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독거노인,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 1가구 소풍행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부 확인 및 안전점검, 난방용품 지원 등 겨울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남원 중앙교회, 사랑 가득한 연탄 나눔 전달

남원 중앙교회(목사 정종승)는 최근 남원시 여러 동지역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정종승 목사 외 20명의 신자가 연탄1,000장(100만원 상당)을 왕정동 27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며, 양병오 왕정동 동장은 "중앙교회의 연탄 기부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남원 동충동, 작은 숲 문화예술단체와 재능기부 협약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21일 작은 숲 문화예술단체(대표 김희철)와 지역사회 공헌 협약을 맺고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충동은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사업 '영원한 미소' 이벤트를 기획하고, 남원시에서 한복 및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다.



무주 무풍면 서경구씨, 김장배추 2000 포기 기탁

무주군 무풍면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 서경구(33세)씨가 지난 21일 김장용 배추 2천 포기를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 기탁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기탁된 배추는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무주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에 배분될 예정이다. 서경구 씨는 "저도 넉넉한 행편은 아니지만 지역과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꼭 한번 동참해 보고 싶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 기관·사회단체 김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민 편의 중심의 변화를 만들다'

전북자치도 원미옥 주무관,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원미옥 주무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 원미옥 주무관이 2024년 제28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하며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빛냈다. '민원봉사대상'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창의적인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두각을 나타낸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며, 수상자는 전국 공무원 중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우수 민원공무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전북 최초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번호 도입(2005년) △전국 최초 도립공원 안심벨 설치(2016년) △전북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2021년) △소풍 연료화 테스트베드 구축(2024년) 등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 농산물의 특별한 변신... 샘샘, '논두렁 시음회' 개최

유한회사 샘샘은 지난 19일 정읍시 정우면에 위치한 카페 샘샘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디저트를 공개하는 '논두렁 시음회' 가 열렸다. 이번 시음회는 샘샘이 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핵심그룹 리빙랩 실증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단종마인쌀로 만든 아이스크림 너는 참 밥맛이야와 지역 한우와 밀을 활용한 불고기 베이컨 '소 잃고 베이크'를 새롭게 개발해 선보였다.



시음회는 지역 주민과 연령별, 세대별 내방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월 한 달 동안 현장 시음회와 카페 방문객 시음을 병행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메뉴 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샘샘은 지난 4월 정우면 샘골농협의 오래된 참고를 리모델링해 디저트 카페 카페 샘샘을 조성한 바 있다. 지역 농산물을 단종마인쌀, 우리밀, 정우막걸리 등을 활용한 독창적인 메뉴로 농가소득 확대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시, 33개 여성친화기업 상생 네트워크 파트너십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1일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실에서 관내 33개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취업상담사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노무상담, 간담회, 체험프로그램, 설문조사 상생 네트워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촌기업 협약을 맺은 여성친화기업의 노사 갈등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와의 유대관계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여성이 함께 일하기 좋은 노사친화적 일터환경을 위해 전문 노무사를 초빙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컨설팅을 지원했다.

경 및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상호 노력하기 위한 의의를 다졌다. 이번 2024년 여성새일센터·기업체 간 상생 네트워크 사업에는 여성친화 일촌기업협약을 맺은 108개 기업체 중 (주)이엔플러스, 효도림요양병원, 선진이앤지, 박씨네루통지, (유)신포유리식품, 슈퍼와, 김제어린이집, 제일어린이집, 남포어린이집, 상록어린이집, 세종산업(주), 나눔재가복지센터, 쌍용큰사랑노인복지센터, 반석재가복지센터, 희망365 재가복지센터, 뽕열노인복지센터, 제다코리아, (주)유원메디텍, 세미한병원, (유)엘리트푸드, 꼬꼬머어린이집, 살레어린이집, (주)고안, 소망재가복지센터, 가족사랑요양병원,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제노인전문요양병원, 용지재가복지센터, 김제노인복지센터, 마르페재활주간보호센터, (주)케이마린, 베이비캐슬어린이집 등 33개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군 자유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한 공익 캠페인이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못참GO, 돈쓰GO, 날리GO, 속 GO OUT!!' 이 적힌 팻말을 들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함께 참여한 자유중학교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문제가 심각한지 몰랐다고 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도박 근저에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제일교회, 사랑의 백미·잡곡 각 230포 기탁

정읍제일교회(담임목사 강필원)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제일교회는 지난 21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1085만원 상당의 백미(10kg) 230포와 잡곡 230포를 기탁했다. 기탁식은 이희수 시장과 신원재 부목사, 신광일 장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와 잡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 읍면동에 전달돼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골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정읍제일교회는 2015년부터 매해 연말 백미, 이불 등 다양한 후원 물품을 기탁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미희)에서 군수실을 방문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전달식에서 박미희 협의회장은 "지역경제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진안군수)은 "매년 고향의 인재양성을 위해 후원에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시 시사합, 위원 100명 역량강화 교육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권영세)가 21일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2층에서 1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병균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과 박정임 강사를 초청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고취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강조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공부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발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고독사 발굴을 주제로 김제시의 지역 여건과 자원 현황을 알아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영세 민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 정읍취업증개센터와 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20일 정읍시취업증개센터(센터장 하은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사회 고용인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위해 협력하며,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보호사업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하은주 센터장은 "정읍시취업증개센터는 지역 내 취업 지원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오늘 보호공과과의 협약을 통해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농협·농가주부모임연합회, 쌀 소비촉진 나눔행사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과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는 21일 부안여고를 방문해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쌀밥 인식전환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안여고 교직원 및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희망드림봉사단과 부안농협, 전북농협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급식소에 쌀을 기부함으로써 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지원했다. 김미자 회장은 "'밥이 보약이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의 식습관 개선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쌀 소비촉진과 아침밥 먹기 운동을 위해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